



07월
2018
JULY



KANSAS CITY
KOREAN JOURNAL
캔사스 시티 코리안 저널

단돈 만블로 식당 장만하세요

- *사이즈에 비해 저렴한 렌트
- *성업중인 스시&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
- *동네에 단 하나뿐인 코리안 바베큐
- *업종변경 가능
- *모든 인벤토리 포함
- *두번다시 오질 않을 기회
- *질문있으시면 785-691-8860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정한약
빠른회복**



816-444-1218

교통사고, 각종질환 양.한방전문협진 | 한의사 김일형

Inside the Issue
이달의 지역기사

통합 의료가 건강 관리에
대한 맞춤 식 접근 방식
을 제공하다
PG. 6



Looking for Space?

Find that perfect space for your business or restaurant. Call today!

드라이 클리닝, 코인 라우리, 식당, 비유티 스퍼리아 가
내을가게, 리플 가게, 그로스리, 빌딩, 집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Call today to find out more!

Jennifer Jang • 816-729-6232 • jjang@blockllc.com

700 W. 47th Street, Suite 200 | Kansas City, MO 64112
816-412-8416 | www.BLOCKLLC.com



**INSURANCE AGENT
보험 전문인**

이 리사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자동차, 주택, 사업, 생명, 메디케어 플랜
AUTO, HOME, BUSINESS, LIFE
MEDICARE HEALTH PLAN
7180 W 107TH ST., #10, OVERLAND PARK, KS 66212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까?**

교통사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사고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병원
예약전화: 913-649-2044



KANSAS CITY
KOREAN JOURNAL

JULY 2018
VOL #45 \$3.95

Breaking news online
kckoreanjournal.com



Find us on Facebook
/ kckoreanjournal

Dr. Kyunghwan An

Adjustments	교정	\$29
Acupuncture	침	\$29
Adjustments & Acupuncture		\$39
척추교정 & 침		

Grandview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121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64030
Phone number: 816-217-0020

platinum realty BizPRO by iAssessing System, LLC

김준수 세무 회계 부동산

세무 회계 부동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재산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JUNSU KIM, CPA, EA, MSA, REALTOR
1032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T.913-383-8558 / F.913-815-8810 / INFO@BIZPROK.COM

로한 척추신경 & 침술클리닉



아름다운 중심을 잡습니다

교통사고

운동상해

디스크 질환

어깨질환

임산부 교정

메디컬 마사지

디지털 X-ray



상담해드립니다.

- ✓ 학생 보험 및 각종 보험
- ✓ 무보험자 할인 혜택
- ✓ 교통사고와 직장에서의 사고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LohanChiro

교통사고 대처요령

- 1 사고 후 통증 발생 시, 911전화
- 2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카드 (이름, Policy#, 자동차 Year, Make, Model)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확보
- 3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장 촬영 (전체 환경을 다 포함한 사진- 신호체계, 몇 차선 도로, 스탱 사인 여부, 차량 번호판)
- 4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제공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TEM
한방 클리닉
816-444-1218 ext.4



Lohan Clinic
Skin & Massage
816-444-1218 ext.3



자매 병원
Grandview Clinic
816-217-0020



로한 스킨 클리닉

f #LohanSkin

동안 관리

여드름 관리

얼굴 경락

미백 관리

리프팅 | 탄력

노화 방지

얼굴 경락은 막힌 피부를 풀어 괴사된 세포 및 유해한 독소 등이 림프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면서 피부에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혈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Jet Clear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부와 두피에 물 입자를 분사해 피부 부위를 세정하거나 영양 물질 화장수를 도포하여 모공청소, 각질제거, 미백, 여드름, 그리고 턱선과 눈가에 주름개선 및 탄력에 효과적이며 얼굴에 축적되어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해주는 최신장비입니다.

✓ **바디** 전신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www.lohanskin.com

척추교정 무료 / 한방치료 무료

NEW PATIENT ONLY

7월 둘째주, 목요일 !!

치료 잘하기로 소문난곳 !!
자신있게 공지합니다 !!

816 - 444 - 1218

교통사고, 통증 및 만성 질환



척추신경의 홍성민

척추교정

침

+

스트레칭

한약

+

물리치료

추나요법



한약사 김일형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 캔사스시티 코리아인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넘겨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journal.com Thank you.

◆ 일반 및 광고 연락처 / General and Advertising Contact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LETTER FROM THE EDITORS

Welcome to a very hot summer! I hope everyone is staying nice and cool or very well hydrated. It is now officially summer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do. The Fourth of July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there are many cities having their own celebrations. You can see fireworks for days if you plan it well. So plan well and enjoy your summer!

◆ 목차 / READER'S GUIDE

◆ 커뮤니티 / COMMUNITY PG 6-7	◆ 경제 / ECONOMY PG 20-21
◆ 캔사스 소식 / LOCAL NEWS PG 8-9	◆ 스포츠 / SPORTS PG 22-25
◆ TRAVEL PG 29	◆ WELLNESS PG 26-27
◆ 세계 뉴스 / WORLD NEWS PG 10-15	◆ 문화 와 생활 / LIFESTYLE PG 24-25
◆ 사업 / BUSINESS PG 16-17	◆ 믿음 / FAITH PG 28
◆ 디렉토리 / DIRECTORY PG 18-19	◆ 무료 광고 / CLASSIFIEDS PG 30-31

KC CALENDAR OF EVENTS

July 1: URBANA: From: 04:00 PM to 08:00 PM, Kansas City Power & Light District, 13th & Walnut Sts., Kansas City, MO 64106	Weston, MO 64098	From: 12:00 PM to 08:00 PM, The White Theatre at the J, 5801 West 115th St., Overland Park, KS 66211
July 3: DINOSAURS REVEALED: July 3-January 2, M-F 10:00-6:00 pm, Sat 10:00-7:00 pm, Sun 11:00-5:00pm, Union Station Kansas City,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July 4: KC RIVERFEST 2018: 04:00PM-10:00PM, Richard L. Berkley Riverfront Park, 1298 Riverfront Dr., Kansas City, MO 64101	July 14: 31ST ANNUAL BINGHAM-WAGGONER ANTIQUE & CRAFT FAIR: 9:00 AM - 4:00 PM, Bingham-Waggoner Estate, 313 W Pacific Ave., Independence, MO 64050
July 3: BBQ AND BOOM: July 3-July 4, From: 10:00:00 to 10 PM, Worlds of Fun, 4545 Worlds of Fun Ave., Kansas City, MO 64161	July 4: OVERLAND PARK STAR SPANGLED SPECTACULAR: Starts at 05:00 PM, Corporate Woods, 8717 W 110th St., Overland Park, KS 66210	July 14: KC SOCCER JAM: From: 10:00 AM to 05:00 PM, Swope Soccer Village, 6310 Lewis Road., Kansas City, MO 64133
July 4: Independence Day	July 4: GARDNER JULY 4TH CELEBRATION AND FIREWORKS DISPLAY: 03:30 PM-10:00 PM, Celebration Park, 32701 W 159th St., Gardner, KS 66030	July 22: KANSAS CITY'S BIG PICNIC: From: 4:00 PM to 8:00 P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4525 Oak St, Kansas City, MO 64111
July 4: VILLAGEFEST: 7:30am, Mission Hills Municipal Court, 77th & Mission Road, Kansas City, KS	July 6: SAVE A LIFE: CENTENNIAL BLOOD DRIVE DONATION: From: 09:00 AM to 01:00 PM, National World War I Museum and Memorial, 100 W 26th St., Kansas City, MO 64108	July 22: MIAMI COUNTY FAIR AND RODEO: July 22-28, Miami County Fairgrounds, 401 E. Wallace Park Drive, Paola, KS 66071
July 4: STILWELL 4TH OF JULY PARADE & FIREWORKS: 5pm, 192nd Street, Stilwell, KS	July 6: USO SWING DANCE: From: 08:00 PM to 10:00 PM, Union Station Kansas City,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July 26: U.S. Women's National Team in 2018 Tournament of Nations: July 26, Starts at 03:00 PM, Children's Mercy Park, 1 Sporting Way, Kansas City, KS 66111
July 4: PARKVILLE 4TH OF JULY CELEBRATION: From: 10:00 AM to 10:00 PM, Main St & Hwy 9, Parkville, MO 64152	July 6: "INTO THE WOODS" (RATED PG) AT THE THEATRE IN THE PARK: July 6-14, From: 08:30 PM to 10:30 PM, Theatre in the Park, 7710 Renner Rd. Shawnee, KS 66217	July 29: THE GREAT CAR SHOW: From: 09:00 AM to 03:00 PM, National World War I Museum and Memorial, 100 W 26th St., Kansas City, MO 64108
July 4: COMMUNITY DAYS PARADE: Starting: 10:00 AM, City of Lenexa, Kansas, 1710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9	July 8: DISNEY'S NEWSIES: Sunday, Wednesday, Thursday, July 8-July 29,	



경험많은 셰프가
일식 전통과 튜진이 어우러진
코스 요리를 서브 합니다
예약 913.258.5879
단체예약 받습니다

maru
Sushi & Grill



Lunch
Mon-Fri 11:30-2:30pm
Sat & Sun 12-3pm
Dinner
Mon-Thur 4:30-9pm,
Fri 4:30-10pm
Sat 3-10pm
Sun 3-9pm
Happy Hour
Mon-Fri 4:30-6pm
Sat & Sun: 3-5pm

Prairie Fire 5621 W. 135th St. Suite 2620
Overland Park, KS 66223
www.marusushikansas.com 913.258.5879

Very Profitable Dry Cleaners for Sale

*asking \$250,000

*net owner benefit over \$100,000

- Drive thru, 환경 문제 없음
- Hydrocarbon, 기계 2대
- Air conditioned, 많은 최신 장비
- 한달 training, 쉬운 운영
- training, 잘된 좋은 종업원들
- 영어 가능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분 원함



Successful dry cleaning business in Kansas City area. Air conditioned, store-front facility with drive-thru on busy street. pickup and delivery in select neighborhoods. Most dry cleaning and laundry equipment new, high tech & environmentally friendly. 2 hydrocarbon machines without EPA regulations. Easy operation. Well trained, honest employees. Will train minimum of 1 month.

LOCATION
INDEPENDENCE, MO

CONTACT INFORMATION
L Phillips
816-298-5141 curbside2005@gmail.com

James Kim
816-699-2933 komanvip@gmail.com

통합 의료가 건강 관리에 대한 맞춤형 식 접근 방식을 제공하다

INTEGRATIVE MEDICINE OFFERS PERSONALIZED APPROACH TO HEALTH CARE

By Jeffrey Field **적음**

스 아마비, 결핵 및 인플루엔자와 같이 과거 사회를 고통받게 하던 질병들은 대개 그 원인이 명확하다. 오늘날 가장 많은 인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들은 심장 질환, 뇌졸중 및 암이며, 이는 모두 흡연, 식이 요법, 좌식 생활 방식, 스트레스, 유해 환경에 대한 노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조합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안으로 통합 의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캔사스 보건 시스템 통합 의학 이사인 김운항 MD는 환자가 가진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전통적 치료 방식, 생활 방식 개선, 한약 및 기타 치유 유형의 요소를 사용하는 통합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환자들은 다양한 치료법의 장점만을 택해 가장 이상적인 맞춤형 의료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처방이나 수술이 답이 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더 복잡한 전체론적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각 환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파악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통적으로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5 ~ 10 분간 대화하는 것이 전부이나, 김 MD는 통합 의학은 환자의 삶과 가족에 관해 다양한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면담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의 성향을 온전

히 평가하여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김 MD는 "나는 전통적인 의학이 시간을 과소 평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 물리학자가 내게 이르기를, 모든 문제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통합 의학에서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포괄적인 인터뷰와 전통적인 의사 면담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신체 검사 외에도, 통합 의학은 호르몬 불균형, 음식 감도 또는 화학 물질 노출과 같은 요인을 찾거나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테스트를 제안할 수도 있다. 김 MD는 환자가 기꺼이 어떤 종류의 건강 접근법을 고려하고 어떻게 반응 하는지 알아 내는데 집중한다. 그가 자주 추천하는 치료법 중 일부는 침술과 식이요법이다. 그는 위장 건강을 위해 김치와 같은 발효 식품을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허브 (한방)도 추천한다. 그는 환자가 침술이나 신경수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진료소에 있는 팀원에게 소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MD의 목표는 환자의 응급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바른 경로에 두는 것이다.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의 통합 의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을 방문하거나 913-588-6208로 문의하세요.

With common illnesses that plagued societies in the past - polio, tuberculosis and influenza, to name three - doctors usually knew exactly what caused them. Today's top killers include heart disease, stroke and cancer, all of which can be the result of smoking, diet, a sedentary lifestyle, stress, exposure to environmental toxins or a combination of factors that vary with every case. So a one-size-fits-all approach to health care may not be the best option these days.

That's where integrative medicine comes in. Yoon Hang Kim, MD, director of Integrative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describes the integrative approach as one that seeks the root cause of a patient's problems and uses elements of conventional, alternative, lifestyle, Chinese medicine and other types of healing in ways that work best for each individual patient.

"You're taking the strengths from all the different systems and putting

it together," he said. A simple prescription or surgery might be the answer in some cases. For others, it may take a more complicated holistic strategy. Figuring out the right approach for each patient starts with taking time to gather information. In a traditional doctor's appointment, you might only have 5-10 minutes to face with your provider. Dr. Kim says Integrative medicine appointments can last for an hour, sometimes more, with patients answering a lot of questions about their life and families. He wants to fully assess who the people are so he can find scientific solutions for their problems.

"I think time is something we underestimate in conventional medicine," he said. "One physicist taught me that all problems can be solved with energy and time. In integrative medicine, we allow the time and energy."

In addition to an extensive interview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you'd get in a traditional doctor visit, an integrative medicine provider may also want scientific testing to help look for - or rule out - factors like hormonal imbalances, food

sensitivities or chemical exposure.

Dr. Kim says he tries to find out what types of wellness approaches that a patient is willing to consider and how the patient might respond to them. Some of the treatments he often recommends are acupuncture and using food as medicine. He says he routinely recommends patients eat fermented food, such as kimchi, for optimal gastrointestinal health. Chinese herbs (Han Bang) are also a frequent recommendation.

He says if patients can benefit from acupuncture or neurofeedback, he can refer them to team members in his clinic.

The goal, Dr. Kim says, is to address his patients' immediate health concerns and put them on a personalized path toward long-term health.

To learn more about Integrative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visit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 or call 913-588-6208.

캔자스 대학 보건 시스템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윤향, MD
4000 Cambridge St.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913-588-6208



Kansas City Korean Choir singing at the 2018 National Flag Day and Flag Retirement Ceremony at The Korean War Memorial by Union Station in Kansas City, MO.

BUSINESS OPENINGS IN KANSAS CITY

Openings

Banksia Bakehouse, 105 W. Ninth St., Downtown, KCMO, 816.474.9935, banksiabakehouse.com

Fannie's African & Tropical Cuisine, 4105 Troost Ave., KCMO

KOBI-Q, 1531 Grand Blvd., KCMO 816.982.9627, facebook.com/Ko-bi-Q-1877501172261730

Martin City Brewing Co. Pizza & Taproom at Mission Farms, 4000 Indian Creek Pkwy., Overland Park, Kansas, martincitybrewing-company.com

Reggae Kitchen, 5535 Troost Ave., KCMO facebook.com/Reggae-Kitchen-181290889321760

Freestyle Poke, 509 Delaware St., Kansas City, Missouri, freestylepoke.com

Golden Ox, 1600 Genessee Street, KCMO

Coming Soon

Afterword Tavern and Shelves, 1834 Grand Blvd., KCMO afterwordkc.com (June 20)

Baramee Thai Bistro, 1810 Baltimore Ave., Kansas City, Missouri

Betty Rae's Ice Cream, 412 Delaware St., River Market, KCMO, bettyraes.com

The Distrikt Biskuit House, 3915 Troost Ave., KCMO

Duck Donuts, 3630 West 95th St., Leawood, Kansas, duckdonuts.com

KimChee, 3107 Gillham Road, KCMO, 913.384.0974, kim-chee-kc.com

Made in Kansas City Marketplace, Country Club Plaza, 306 W. 47th St., retail shop, food hall. A late June /July opening.

Our Daily Nada, 304 Delaware St., River Market, KCMO, ourdaily.com

ilynada.com

Parlor KC, 1707 Locust St. The food hall has signed Karbon, Mother Clucker, Providence Pizza, Sura Eats and Vidhast. Late August opening.

The Pantry KC, 7769 Quivira Road, Lenexa, Kansas, facebook.com/The-Pantry-KC-182896209205154/

Pearl Tavern, 1672 Northwest Chimpman Road, Lee's Summit, Missouri, facebook.com/Pearl-TavernKC

Southern Charm Gelato Shoppe, 511 Nichols Road, Country Club Plaza, Kansas City, Missouri, southerncharmgelato.com

Closings

Bistro 913, 7702 Shawnee Mission Parkway, Overland Park. A partner said it is temporarily closed during changes in the ownership.



캔사스 법원이 교사들의 종신재직권을 파하는 법을 재기하다

KANSAS COURT UPHOLDS LAW ENDING TEACHERS' GUARANTEED TENURE

JOHN HANNA

TOPEKA, Kan. (AP)

캔사스 주 공립학교 교사들의 종신재직권을 파하는 정책은 주 정부가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주정부 또는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은 2015년 5월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자신의 농촌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교사를 상대로 판결했다. 그들은 공화당이 통제된 입법부가 2014년 법을 통과시켜 본인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법적 절차는 교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상대로 이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 받고 그러한 결정을 청문관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 교육청은 현재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했으며, 교육 그룹은 주정부의 286개 교육구 중 3분의 1 이하가 교사를 보호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재산권을 대표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버틀러 카운티의 284명의 학생이 있는 Flinthills 교육구의 설리 Sallie Scribner와 Mark McNemee는 교사들에게 18년차와 16년차가 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 Scribner와 McNemee를 대표하는 캔사스 국립 교

육 협회의 David Schauner 변호사는 "이 의견은 내게 불쾌하며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개념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보수당 공화당은 악의적인 교사를 해고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사 종신재직권을 파기하려 했다. 주의회의 가장 큰 교사 조합인 KNEA와 다른 의원은 임원이 교육자들을 임의 해고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이 종신 계획을 법안으로 변경하여 재임 기간 종료에 대한 공청회 없이 빈곤한 학군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을 강화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 대법원은 반대할 수 있는 시간 조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작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주 헌법과 연방 헌법의 규정은 국회의원에게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피드 업 과정에서 서도 두 입법부 모두 제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A Kansas law that stripped public school teachers of guaranteed tenure doesn't violate the state or federal constitution because legislators had the power to modify or end the policy, the state Supreme Court declared Friday. The court ruled against two veteran teachers who sued their rural school dis-

trict after it did not renew their contracts in May 2015. They argued that the Republican-controlled Legislature deprived them of a property right through an expedited process for passing the law in 2014 that violated their right to due legal process.

Teachers with more than three years in the classroom previously had the right to be informed in writing why their contracts were not being renewed and to have such decisions reviewed by an independent hearing officer. Local school boards now set their own policies, and education groups have said a third or less of the state's 286 school districts have some protections for teachers. The Supreme Court disagreed that tenure represented a property right that could not be modified or removed by lawmakers. The earlier version of the law explicitly said as much. "The legislative process itself generally provides all the process that is due when the legislation results in a complete or partial deprivation of property interests of more than a few individuals," Justice Marla Luckert wrote for the court.

In May 2015, the 284-student Flinthills school district in Butler County notified teachers Sallie Scribner and Mark McNemee that their contracts would not be renewed after 18 years and 16 years with the district, respectively.

"This sets a precedent that ought to frighten anyone who owns a property right," said David Schauner, general counsel for the Kansa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which represented Scribner and McNemee. "The opinion offends me. It is inconsistent with this notion of the opportunity to be heard." Conservative Republicans sought to end guaranteed tenure, arguing the move would make it easier to fire bad teachers. Other lawmakers and the KNEA, the state's largest teachers' union, said tenure protected educators from arbitrary dismissals. Conservatives folded the repeal into legislation boosting the state's aid to poor school districts without public hearings on ending tenure. Lawmakers moved so quickly that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window for protesting was "small if not nonexistent." However, the justices said provisions in the state and federal constitutions protecting the right to due legal process did not require lawmakers to have public hearings. Even in the speeded-up process, the court said, both legislative chambers had an opportunity to debate the proposal.

US TEACHER HONORED FOR HIGHLIGHTING POLISH HOLOCAUST HERO

WARSAW, Poland (AP)

An American teacher who together with his students shed light on the story of a Polish woman who saved hundreds of Jewish children during the Holocaust was honored Monday with the award that bears her name. Irena Sendler and her story were largely unknown until Norman Conard and his high school students in rural Kansas began producing a play about her, "Life in a Jar," in 1999 as part of a history project on unsung heroes. The play has since been performed 375 times around the world, movies have been made, schools in Poland and Germany have been named after her and she was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VANESSA GERA

Poland's Culture Ministry and the San Francisco-based Taube Philanthropies presented Conard with the 2018 Irena Sendler Memorial Award in Warsaw's Royal Castle. Poland has designated 2018 the Year of Irena Sendler, to mark the 10th anniversary of her death at the age of 98. Culture Minister Piotr Glinski described Sendler as a symbol of the many other brave Poles who risked their lives for others during World War II, many of whose names will never be known. A social worker, Sendler directed an underground network that saved Jewish children by placing them in orphanages, convents and with Christian families. In many cases, the network's volunteers smuggled children out

of Warsaw's ghetto after convincing parents it was the children's only chance of survival. Sendler and her collaborators buried the names of the children in jars, hoping to later reunite them with their parents. In most cases the parents were murdered in Treblinka. Though recognized by Yad Vashem in 1965, Sendler was largely unknown before Conard became involved. Poland's chief rabbi, Michael Schudrich, said Sendler credited Conard and his students with the recognition she obtained late in life and often referred to the American students as her children. In a chilling coincidence, the Kansas students began researching Sendler on the same day — Sept. 23, 1999 — that Sendler's beloved son Adam died of heart failure, Conard said. In

letters to the students, Sendler used to address them as "my dear and beloved girls, very close to my heart." Conard described Sendler as a woman of courage and humility who always sought to deflect attention from herself. "She would want all of her network to be recognized. And she also said that the real heroes were the Jewish parents and grandparents, who were making decisions that no one should have to make," Conard told The Associated Press before the ceremony.

"Some of the parents refused to give their children up, and when she went back to talk to them again, the children and parents had been taken away on the trains," he said.

"This is her award, and it's to recognize her," said Conard, now the director of the Lowell Milken Center for Unsung Heroes in Fort Scott, Kansas.

FEDERAL COURT RULING MAKES IT EASIER TO VOTE IN KANSAS

By ROXANA HEGEMAN

WICHITA, Kan.

More than 25,000 Kansans whose voter registration applications had been listed as incomplete for lack of proof-of-citizenship documents are being fully added to the voting rolls after a federal court decision last week finding that the requirement was unconstitutional.

U.S. District Judge Julie Robinson's ruling that the state law violated the right to vote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will also make it easier for new wannabe voters to register for this year's August primary and November general election. The policy had been championed by Secretary of State Kris Kobach, who has pushed such laws nationwide and led President Donald Trump's now-de-

funct voter fraud commission. Kobach, who is seeking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governor, has said he plans to appeal. But courts had already previously temporarily blocked Kobach from fully enforcing the Kansas law, with the 10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in Denver calling it "a mass denial of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Here's more about the impact of the ruling.

Q: I am not registered. How do I do that?

A: Go online at ks.votes.org or visit your county election office. You can also register by mail by calling your county election office and asking them to send you a voter registration form. Another option is downloading the National Mail Voter Registration Form and mailing it in.

If you have moved or changed your name, you need to update your registration. The deadline to register for the August primary is July 17.

Q: I received a notice that I needed to provide proof of citizenship to complete my voter registration. Do I still need to do that?

A: No. You must be a U.S. citizen, but you do not have to provide documentary proof. The court ordered Kobach to stop enforcing that law and to make sure registrants who had received notices telling them their registrations were incomplete now receive certificates saying they are registered.

The judge ordered Kobach and the ACLU, which had sued in opposition to the law, to report back to her 30 days before the primary to verify compliance with her orders and determine whether other steps are nec-

essary to make sure those with formerly incomplete applications get registered and know it.

Q: How can I make sure I am properly registered to vote?

A: Good question. To make sure your voter registration has been entered into the system go to ks.votes.org. Click on the "Are you registered to vote?" button and enter your name, birth date and county. If you are registered, you'll get a page showing your registration details such as address, party, polling place and other information. You can also see a sample ballot tailored to your precinct and review your voting history.

Q: Do I still have to show a government-issued photo ID when I vote in Kansas?

A: Yes. If you don't have a driver's license or other accepted ID, the League of Women Voters of Kansas can help. Reach them at 785-234-5152.



하버드, 아시아계 미국인 차별 HARVARD, ASIAN-AMERICANS GROUP SPAR OVER DATA IN BIAS CASE

By COLLIN BINKLEY

이 학 기록 조사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에 지원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른 인종 그룹보다 더 높은 학업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학률은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공정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하버드가 일상 생활에서 선호도, 용기 및 친절 함과 같은 속성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평가 범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점수를 낮추어 주어 백인 학생들보다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한다.

공정한 입학을 위해 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을 창립한 법률 전략가 Edward Blum은 자신의 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하버드의 극심한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대해 해당 학교는 인종차별 혐의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 재판을 끝내도록 애쓰고 있으며 이 소송은 하버드의 지난 6년간의 입학 자료에 따라 진행된다.

서류에 따르면 각 지원자는 학업 성취도, 과외 활동, 운동 및 개인의 네 가지 범주로 평가되어 숫자 값을 할당 받으나 특정 수식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결정은 각 신청자를 검토하는 40 명의 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Duke 대학의 경제학자인 Peter Arcidiacono가 실시한 공정한 입학을 위해 학생들이 공유한 이 연구는 인종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개인적 자질" 부문에서 다른 인종 그룹보다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하버드가 지정한 전반적인 등급에서도 백인 상대로 낮았다. 그 대신, 하버드 대학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 David Card로부터 해당 학교가 인종 차별적 입학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색했다. 이 자료는 지원자의 인종이 입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변인은 소송 과정 중 발견된 2013 내부 연구의 사용에 반대했다. 이 조사는 학교에서 인정한 수업의 인종 구성을 탐구했는데, 보고서의 차트에 따르면 과외 활동 같은 요소를 고려해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한 수업의 약 2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서술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19%를 차지했다. 입학생들은 이 보고서가 의도적인 차별의 증거이며 하버드는 "연구를 중단하고 조용히 보고서를 묻어 두었다"고 전했다.

하버드 대변인은 본래 이 연구가 학교의 차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불완전하고 예비 적이며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요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소송 초기 변호사들이 검토한 하버드 자료 수집에 집중해 있다. 하버드 대변인은 학생 기록과 입학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료를 기밀로 신고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Blum의 그룹은 대중이 그 기록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 교육부는 이에 동의했다.

BOSTON (AP)

Even though they bring stronger academic records than any other racial group, Asian-Americans who apply to Harvard University face the lowest acceptance rates, according to a study of admissions records filed Friday by a group that's suing the school over alleged discrimination. The group,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ays Harvard routinely assigns lower scores to Asian-American students in subjective rating categories such as likeability, courage and kindness, putting them at a major disadvantage compared to white students. Edward Blum, a legal strategist who founded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ssued a statement saying his group's filing "exposes the startling magnitude of Harvard's discrimination."

Harvard blasted the study in an opposing court filing and submitted a countering study that found no evidence of bias. In a statement, the school called the lawsuit an attack on its ability to consider race in admissions, which it says is necessary to gather a racially diverse mix of students. "Harvard will continue to vigorously defend our right, and that of other colleges and uni-

versities nationwide, to seek the educational benefits that come from a class that is diverse on multiple dimensions," the school said.

The studies were filed in Boston's federal court as both sides attempted to persuade a judge to end the suit before it reaches trial, which has been scheduled to start in October. It marked a step forward in a lawsuit that has lasted nearly four years and has drawn the attention of the U.S. Education Department, which is also looking into Harvard's use of race in admissions. Both sides built their cases on six years of admissions decisions at Harvard. The records, for students who applied from 2010 through 2015, are barred from the public, but the dueling analyses offered a rare glimpse into the secretive inner workings of the Ivy League school's admission office.

According to the filings, each applicant is assigned a numerical value in four categories — academic, extracurricular, athletic and personal — along with an overall score that's meant to be comprehensive but isn't based on any particular formula. Ultimately the decision comes down to a committee of 40 people who review each applicant. For students who choose to submit their race, Harvard says it's considered as one factor among many that may "inform an applicant's life experience"

and the contributions they will offer.

But the study shared by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which was conducted by Duke University economist Peter Arcidiacono, says race plays a major role and works against Asian-Americans.

The study found that if Harvard relied only on the academic scores it assigns to each applicant, more than half of admitted students would have been Asian-American over the six years. Instead, they made up 22 percent. Arcidiacono largely puts the blame on subjective categories that disfavor Asian-Americans. They received lower scores than any other racial group in the category for "personal qualities," for example, and they fared worse than whites in the overall rating assigned by Harvard. Yet he notes that Harvard alumni who interview applicants and provide separate ratings scored Asian-Americans higher than whites overall, a contrast that Arcidiacono says suggests bias.

The university says the analysis is flawed because it excludes applicants believed to have an advantage regardless of race, including relatives of alumni and athletes recruited by the school.

Instead, Harvard sought its own study from David Card, an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found no evidence of discrimination. Looking at a wider pool of applicants and admissions factors, Card found that the effect of being Asian-American was "statistically indistinguishable from zero."

Harvard also objected to the group's use of a 2013 internal study that was uncovered during discovery. The inquiry, which was conducted amid earlier allegations of bias, explores the racial makeup of the school's admitted class. A chart from the report indicates that, even considering factors like legacy statu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sian-Americans would be expected to make up about 26 percent of the admitted

class. In reality, they made up 19 percent.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aid the report is proof of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that Harvard "killed the study and quietly buried the reports."

Harvard countered that the study was never intended to evaluate possible discrimination and that it was "incomplete, preliminary and based on limited inputs." The lawsuit raises implications for many other universities that, like Harvard, say they consider race among many factors. In 2016, the Supreme Court examined the topic and upheld race-conscious admissions at the University of Texas, but the justices warned that other colleges still must be able to prove affirmative action is the only way to meet diversity goals.

Blum also was a driving force behind that case, helping Texas student Abigail Fisher sue the university. Fisher is also an executive in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according to the group's tax filings. Friday's court filings followed a battle over a trove of Harvard data reviewed by lawyers earlier in the lawsuit. Harvard argued that its records should be filed confidentially to protect students and the admissions process. Blum's group said the public should have access to the records, and the U.S. Education Department weighed in to agree. The judge ultimately sided with Harvard, but Blum said Friday that he believes the rest of the records will be released "in the next few weeks."

Collin Binkley can be reached on Twitter at twitter.com/cbinkley

RIVAL KOREAS AGREE TO REUNIONS OF WAR-SEPARATED FAMILIES

KIM TONG-HYUNG, Associated Press

SEOUL, South Korea (AP)

North and South Korea have agreed to hold temporary reunions of families divided by the 1950-53 Korean War in August as they boost reconciliation efforts amid a diplomatic push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reunions will take place at North Korea's Diamond Mountain resort from Aug. 20 to 26, Seoul's Unification Ministry said after a nine-hour meeting between Red Cross officials from the two sides.

It said the countries will each send 100 participants to the reunions. People with mobility problems will be allowed to bring a relative to help them.

Such temporary reunions are highly emotional as most wishing to take part are elderly people who are eager to see their loved ones before they die. The families were driven apart during the turmoil of the wa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greed during a summit in April and in May, to hold the family reunions about Aug. 15, the anniversary of the Korean Peninsul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Their two summits have opened various channels of peace talks between the countries. The rivals recently agreed to restore cross-border military hotline communication channels and field joint teams in some events at the upcoming Asian Games in Indonesia.





세계 뉴스 / WORLD NEWS

트럼프의 가족 분단법이 중단되다 IN REVERSAL, TRUMP ORDERS HALT TO HIS FAMILY SEPARATION RULE

BY JILL COLVIN AND COLLEEN LONG,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 횡단을 하는 도중 붙잡힌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지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모든 성인을 범죄자로 기소 한 "무관용" 정책을 끝내지는 않는다. 지난 달부터 실시된 "무관용" 정책은 성인들을 미국 육군 원수 (Marshals Service)의 구금 시설로 옮기고 보건 복지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아이들을 보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국경에서 2,3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최근 몇 주 동안 가족을 분리하는 데 급격한 영향을 미쳤다. 이 새로운 변화는 정책이 시행된 이래로 2,300명의 미성년자 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 않는 듯 하다. 국경에서 잡힌 미성년자의 치료 및 석방 정책을 수립한 이전의 집단 소송 합의에 따라 가족은 20일 동안만 구금될 수 있다.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플로레스 합의 (Flores settle-

ment)로 알려진 협약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면서 판사가 범죄 및 해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가족 구금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1980년대에 이 사건을 제기한 십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플로레스 합의는 정부가 아동을 친권자와 친척, 친척 또는 기타 관리인에게 우선권의 순서대로 석방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옵션이 소진되면 당국은 부모없이 도착한 아동에게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을 찾아야 한다.

가족이 감금 기한에 도달할 때까지 법률 변경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동의 복지에 최선이라면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또한 이미 분리된 어린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분명하다.

보건 복지부 장관 Alex Azar는 구금된 이민자 자녀들을 부모와 재결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빨리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다. Nielsen 국토안보부 장관은 수요일 국회 의사당에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미군 기지에서 가능한 구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이미 텍사스에서 실시됐으며 또 다른 구금 시설은 목요일에 알칸사스에 예정 되어있다.

2016년 제9차 미국 순회 항소 법원 (CIRC)은 부모와 국경을 넘다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아동 이민자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모가 석방되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금 상태에 있고

록 요구하지 또한 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가족들은 보통 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민사 강제 추방 절차에 회부되었다. 현재 총 2,700 병상을 갖춘 3개의 가족 수용소가 있다.

WASHINGTON (AP)

Bowing to pressure from anxious allies, President Donald Trump abruptly reversed himself Wednesday and signed an executive order halting his administration's policy of separating children from their parents when they are detained illegally crossing the U.S. border. It was a dramatic turnaround for Trump, who has been insisting, wrongly, that his administration had no choice but to separate families apprehended at the border because of federal law and a court decision. The order does not end the "zero-tolerance" policy that criminally prosecuted all adults caught crossing the border illegally. But it would keep families together while they are in custody, expedite their cases and ask the Defense Department to help house them. It doesn't appear to change anything for the some 2,300 children taken from their families since the policy was put into place. The news in recent days has



been dominated by searing images of children held in cages at border facilities, as well as audio recordings of young children crying for their parents — images that have sparked fury, question of morality and concern from Republicans about a negative impact on their races in November's midterm elections. The president, Homeland Security Secretary Kirstjen Nielsen and other officials had repeatedly argued the only way to end the practice was for Congress to pass new legislation, while Democrats said Trump could do it with his signature alone. That's just what he did. "We're going to have strong, very strong borders, but we're going to keep the families together," said Trump, who added that he didn't like the "sight" or "feeling" of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Under a previous class-action settlement that set policies for the treatment and release of minors caught at the border, families can only be detained for 20 days. A senior Justice Department official said that hasn't changed. "This is a stopgap measure," said Gene Hamilton, counsel to the attorney general. Justice lawyers were planning to file a challenge to the agreement, known as the Flores settlement, asking that a judge allow for the detention of families until criminal and removal proceedings are completed. So Trump's order is likely to

create a fresh set of problems and may well spark a new court fight. It's unclear what happens if no changes to law or the settlement take place by the time families reach the detainment deadline. The language also leaves room to separate children from parents if it's best for the child's welfare. And it didn't do much for the teeming outrage over the issue. The Alabama-based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aid the order didn't go nearly far enough. "The administration still plans to criminalize families — including children — by holding them in prison-like detention facilities. There are workable alternatives," president Richard Cohen said in a statement. It's also unclear what will happen to the children already separated.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Alex Azar said his department will start reuniting detained immigran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 but he made no specific commitment on how quickly that can be accomplished. A White House official said first lady Melania Trump had been making her opinion known to the president for some time that she felt he needed to do all he could to help families stay together, whether by working with Congress or acting on his own. Homeland Security Secretary Nielsen briefed lawmakers on Capitol Hill Wednesday, and those on the fence over pending immigration legislation headed

to the White House to meet with Trump. Assessments for possible detention facilities at military bases have already been done in Texas and another is expected in Arkansas on Thursday. Two people close to Nielsen said she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turnabout that led to the new order keeping families together. Those people were not authorized to speak publicly and commented only on condition of anonymity. One of them said Nielsen, who had become the face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 had little faith that Congress would act to fix the separation issue and felt compelled to act. She was heckled at a restaurant Tuesday evening and has faced protesters at her home. Trump had tweeted early Wednesday, before issuing his order: "It's the Democrats fault, they won't give us the votes needed to pass good immigration legislation. They want open borders, which breeds horrible crime. Republicans want security. But I am working on something — it never ends!" The "zero tolerance" policy put into place last month moves adults to the custody of the U.S. Marshals Service and sends many children to facilities run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policy had led to a spike in family separations in recent weeks, with more than 2,300 minors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t the border from May 5

through June 9, according to Homeland Security. The Flores settlement, named for a teenage girl who brought the case in the 1980s,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lease children from custody and to their parents, adult relatives or other caretakers, in order of preference. If those options are exhausted, authorities must find the "least restrictive" setting for a child who arrived without parents. In 2015, a federal judge in Los Angeles expanded the terms of the settlement, ruling that it applies to children who are caught with their parents as well as to those who come to the U.S. alone. Other recent rulings, upheld on appeal, affirm the children's rights to a bond hearing and require better conditions at the Border Patrol's short-term holding facilities. In 2016,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ruled that child migrants who came to the border with parents and were held in custody must be released. The decision did not state parents must be released. Neither, though, did it require parents to be kept in detention, apart from their childre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such families were usually referred for civil deportation proceedings, not requiring separation. There currently are three family detention centers with a total 2,700-bed capacity.

Associated Press writers Zeke Miller, Eric Tucker, Ken Thomas and Alan Fram contributed to this report.



세계 뉴스 / WORLD NEWS

미 - 북 교련 중단으로 북한의 장애물이 약화되다, HALTING SOUTH KOREA-US DRILLS RISKS WEAKENING NORTH KOREA DETERRENCE

HYUNG-JIN KIM AND KIM TONG-HYUNG, ASSOCIATED PRESS

미 국과 한국의 국방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합동 군사 훈련을 공식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가진 후 갑자기 결정된 이 변화는 국방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으로 주로 구성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운동의 중단을 동시에 확인했다.

이 결정은 한국이나 미국 국방부와 협의없이 나온 것으로 한국 전쟁부터 이어져 온 연합 훈련이 한미 군사 동맹의 중심 기둥이라고 믿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같은 훈련 중단 조치가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국의 방위 태세를 일시적으로라도 약화시켜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구금을 연장하고 북한과의 성공적인 핵 외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이며, 북한은 이를 당국 침략을 위한 리허설로 간주해 격렬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여름 을지 훈련은 양국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한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세 가지 연례 공동 연습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원활하게 함께 일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군사적 위협과 미국 전략적 자산의 배치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관을 지휘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번 훈련의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 군축 과정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연구원 김열수 수석 분석가는 말했다. 그러한 행동에는 군축 일정에 대한 합의, 검증 방법 및 일정수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장비 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북한이 바라는 보상은 국제 제재 완화,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그리고 한국의 미군 감축이다.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심각한 반발을 불러와 미국 본토를 겨냥 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한발 더 가까

워졌을 때라면, 훈련 중단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훈련 포기 결정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남북 관계로 시달려 온 한국인들의 태도를 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중단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 년대 초 북한의 핵 위기가 시작될 즈음, 동맹국들은 Team Spirit 이라고 불리는 최대 규모의 봄 훈련을 해제했다. 그 후 북한은 현재 무너진 군축 협상을 통해 핵 시설을 동결시켰다. 그 운동은 이후 재개되지 않았다.

SEOUL, South Korea

U.S. and South Korean defense officials formally suspended a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 in hopes of advancing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t's a bold gamble that could trigger a serious security crisis if the talks falter and the allies are forced to resume the drills, infuriating North Korea, analysts say. The cancellation, abruptly decided by President Donald

Trump at his summit last week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as formally announced by the Pentagon on Monday.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simultaneously confirmed the suspension of the Ulchi Freedom Guardian exercises, consisting largely of computer-simulated war games.

In announcing his decision, Trump said suspending the "provocative" war games would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he decision, which apparently came without consultations with South Korea or the Pentagon, surprised man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o believe the training is a central pillar of their countries' seven-decade military alliance dating back to the 1950-53 Korean War. South Korean military commentator Lee Illwoo described the halt as "temporarily pulling off the wheels of the alliance." Other experts agree that the suspension will weaken, at least temporarily, the allies' defense posture against North Korea and open gaps in their combined deterrence.

Seoul and Washington de-



South Korea and the U.S. Marine Corps are conducting a joint drill

scribe the move as a temporary measure to prolong ongoing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crease the chances of successful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But if North Korea doesn't reciprocate by taking serious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the allies would be compelled to resume the drills, and that would certainly draw a furious response from North Korea, which views the exercises as rehearsals for an invasion, experts say.

"Suspending drills once is dangerous because it causes a hole in our national security. But resuming suspended drills would cause a bigger security crisis because more extreme resistance from North Korea would come," Lee said. The summer Ulchi exercise is one of three major annual joint exercise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staged for decades to hone their ability to cope with potential conflicts with North

Korea. The other two drills are held in the spring — one computer-simulated and the other a field exercis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always said the drills are purely defensive. But they have been a major source of tensions on the peninsula, with North Korea putting its 1.1 million-member military on alert and staging its own weapons tests and military training in response. Experts sa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hold regular drills to prepare their commanders, who change periodically, to work together smoothly in crisis situations and respond to North Korea's evolving military threats and other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It's hard to deny that the security gap problem would exist and the allies must be prepared to snap the drills back on if the North doesn't make genuin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said Yeol Soo Kim, a senior analyst from South Korea's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To justify the suspension of the drills, the United States will need to coax North Korea to reciprocate with significant steps that push the nuclear disarmament process firmly forward, Yeol Soo Kim said. Such actions could include agreements on a disarmament timetable, verification methods and giving up a certain number of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 equipment, Kim said. The drill's suspension is likely the only concession that Trump could provide to Kim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 leader has remained vague about his pledge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ther rewards that North Korea wants are an eas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reduction of U.S. troops in South Korea. Those are bigger concessions that are unlikely to be granted by the U.S. without concrete steps by North Korea toward denuclearization.

"Trump has not many (negotiating) cards now," said Yang Uk of the Korea Defense and Security Forum. The drill's suspension would have been unthinkable last year, when North

Korea sharply raised animosity with a torrid run of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that put the country closer to acquiring a nuclear arsenal capable of targeting the U.S. mainland. Still, the U.S.-initiated decision to shelve the drills isn't likely to dramatically change the psyche of South Koreans who have spent their entire lives facing North Korean threats and living through wild swings in inter-Korean relations. Even last year, few South Koreans publicly displayed security jitters, and civil defense drills were generally lax. That contrasted with 20-30 years ago, when South Koreans rushed to stores to stock up on instant noodles and other provisions when North Korea threatened to turn Seoul into a "sea of fire" and ratcheted up tensions. It'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U.S. and South Korea have halted military drills in an attempt to ease tensions with North Korea and persuade it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Near the star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early 1990s, the allies called off their largest springtime drills, called Team Spirit, after which North Korea froze its nuclear facilities under a now-collapsed disarmament deal. Those exercises have never resumed.



트럼프의 관세 : 무엇이든 어떻게 작동할까 TRUMP'S TARIFFS: WHAT THEY ARE AND HOW THEY WOULD WORK

PAUL WISEMAN and CHRISTOPHER RUGABER, AP Economics Writers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지도부는 서로의 상품 중 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 연합 (EU)은 이달 초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선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을 격분 시켰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상무부에 외제차, 트럭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부과 할 것을 요구했다.

Q : 우리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백악관은 징벌적 의미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중 4천 5백억 달러를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작년 중국이 미국으로 선적 한 상품의 90%에 해당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무역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는 물론 친한 동맹국조차도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훨씬 광범위한 문제와 미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전반적인 무역 적자를 싸우고 있다.

Q : TARIFFS란?
관세는 수입에 대한 세금이며 대개 구매자가 외국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거래 가격의 비율로 청구된다. 미국에서는 세관 및 국경 보안 요원이 전국 328개 항구에서 관세 또는

징수 라고도 부르는 관세를 징수하며 그 수익금은 재무부로 간다. 관세율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건조 통장 (1.4%)에서 낙하산 (3%)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미국 관세를 나열한 조화 된 관세표에 발표 되어있다. 때로는 미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외국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Q : 다른 나라들도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나?
옥스포드 경제학과의 Greg Dac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상품에 대한 무역 규모를 고려한 미국의 관세는 일본의 2%를 평균 2.4%로, 유럽 연합의 경우 3%, 캐나다의 경우 3.1%보다 약간 낮다. 멕시코와 중국의 비교 수치는 더 높다. 둘 다 상위 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미국은 땅콩에 168%, 담배에 350%라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Q : 관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세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정부 수입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

품을 거저 주다시피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윤으로 수입 가격을 인상하거나 외국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Q : 왜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세계 각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무역에 대한 제한을 없애 버린 수년간의 무역 협정 이후,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커졌다. 비판론자들은 부유 한 나라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중국 및 다른 저임금 국가로 옮기기 위해, 규칙을 이용하고 낮은 관세를 지불하거나 전혀 지불하지 않고 부유 한 모국에 물건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무역 협정을 수정하고 중국, 멕시코 및 기타 국가들을 단속하겠다는 공약에 동의했다.

Q :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가?
트럼프의 무역 자문 인 Peter Navarro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는 경쟁 압력을 줄임으로써 미국 생산자들에게 가격 인상의 여지를 제공한다. 상승하는 비용은 특히 수입된 부품에 의존하는 소비자 회사에 해치고 있다. 더욱 광범위하게, 경제학자들은 무역 제한으로 인해 경제가 덜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해

외 기업과의 경쟁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효율을 높이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잃게 된다.

WASHINGTON (AP)
So is this what a trade war looks 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hina's leadership have threatened to impose tariffs on \$50 billion of each other's goods. Trump enraged U.S. allies Canada, Mexico and the European Union earlier this month by slapping tariffs on their steel and aluminum shipments to the United States. Trump has also asked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look into imposing tariffs on imported cars, trucks and auto parts, arguing that they pose a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 Here is a look at what tariffs are, how they work, how they've been used in the past and what to expect now:

Q: ARE WE IN A TRADE WAR?
The White House has

threatened to hit \$450 billion of China's exports to the U.S. with punitive tariffs. That's equivalent to 90 percent of the goods that China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last year. It's not uncommon for countries — even close allies — to fight over trade in specific products. But the U.S. and China are fighting over much broader issues and the overall trade deficit the U.S. has with China.

Q: SO WHAT ARE TARIFFS?

Tariffs are a tax on imports. They're typically charged as a percentage of the transaction price that a buyer pays a foreign seller. In the United States, tariffs — also called duties or levies — are collected b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ts at 328 ports of entry across the country. Proceeds go to the Treasury. The tariff rates are published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which lists U.S. tariffs on everything from dried plantains (1.4 percent) to parachutes (3 percent). Sometimes, the U.S. will impose additional duties on foreign imports that it determines are being sold at unfairly low prices or are being supported by foreign government subsidies.

Q: DO OTHER COUNTRIES HAVE HIGHER TARIFFS THA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an analysis by Greg Daco at Oxford Economics, U.S. tariffs, adjusted for trade volumes, on goods from around the world average 2.4 percent, above Japan's 2 percent and just below the 3 percent for the European Union and 3.1 percent for Canada. The comparable figures for Mexico and China are higher: Both have higher duties that top 4 percent. But the United States has its own ultra-high tariffs — 168 percent on peanuts and 350 percent on tobacco.

Q: WHAT ARE TARIFFS SUPPOSED TO ACCOMPLISH?

Two things: Raise government revenue and protect domestic industries from foreign competition. Those tariffs are meant to increase the price of imports or to punish foreign countries for committing unfair trade practices, like subsidizing their exporters and dumping their products at unfairly low prices.

Q: WHY ARE TARIFFS MAKING A COMEBACK?

After years of trade agreements that bound the countries of the world more

closely and erased restrictions on trade, a populist backlash has grown against globalization. Critics note that big corporations in rich countries exploited looser rules to move factories to China and other low-wage countries, then shipped goods back to their wealthy home countries while paying low tariffs or none at all. Trump campaigned on a pledge to rewrite trade agreements and crack down on China, Mexico and other countries.

Q: ARE TARIFFS A WISE POLICY?

Most economists — Trump's trade adviser Peter Navarro is a notable exception — say no. By reducing competitive pressure, they give U.S. producers leeway to raise their prices, too. Rising costs especially hurt consumers and companies that rely on imported components. More broadly, economists say trade restrictions make the economy less efficient. Facing less competition from abroad, domestic companies lose the incentive to increase efficiency or to focus on what they do best.

BUILDER OPTIMISM FADES WITH POTENTIAL TRADE WAR LOOMING

NEW YORK (AP)

The threat of a trade war with Canada has taken a toll on the confidence of U.S. homebuilders, according to index released Monda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Wells Fargo builder sentiment index released Monday fell two points to 68 in June. A reading of 70 in May temporarily snapped a four-month slide. Any reading above 50 indicates more builders see sales conditions as good rather than poor. The index has remained above 60 since September 2016. Builders' view of current sales conditions fell one point, to 75 this month. The outlook for sales over the next six months fell one point to 76. A measure of buyer traffic fell one point to 50.

"Builders are optimistic about housing market conditions as consumer demand continues to grow," said NAHB Chairman Randy Noel, "However, builders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ariffs placed on Canadian lumber and other imported products are hurting housing affordability."

The organization said higher lumber prices have added nearly \$9,000 to the price of a new single-family home since January 2017. The overall housing market remains tight, with prices of existing homes rising as demand remains strong and listings decrease. Mortgage rates are also steadily increasing, making purchases even more difficult for first-time homebuyers. Sales of new U.S. homes fell 1.5 percent in April, according to The Commerce Depart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reported a 2.5 percent drop in existing home sales in April.

캔사스 한인업소록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응자 (장정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 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 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
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옆)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 로한 스킨 클리닉
816-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 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d.,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경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운항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플래티넘 부동산 :
Jun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정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연,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veiwi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진관/프레임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Koin Kleener 816-453-6303
601 N. W. Englewood, KC, MO 64118
Koko Laundry 913-682-2526
604 Pottawatomie St, Leavenworth, KS
Leawood Village Cleaners 816-942-3838
13009 State Line Rd, KC, MO 64145
Laundry Basket 816-923-0979
4418 E. 39th St, KC, MO 64128
Maple Hill Laundry 913-362-4525
2424 S. 34th St, KC, KS 66101
Oak Park Cleaner 913-599-3040
12230 W. 95th St., Lenexa, KS 66215
Old Town Dry Cleaner 816-252-1677
3908 Lynn Court., Independence, MO
Old Town Laundromat 816-254-4501
3910 Lynn Court., Independence, MO
Plattewoods Laundry 816-587-6695
6740 Tower Dr., Plattewood, MO 64151
Quinn's Laundry 816-322-1886
124 North Ave., Belton, MO 64012
Q. Cleaners 913-390-6181
2107 E. 151st St., Olathe, KS 66062
Royal Master Cleaner 816-842-3375
1505 Grand Ave., KC, MO 64108
Rainbow Cleaners Drive In 913-236-9295
4511 Rainbow Blvd, KC, KS 66103
ST Coin Laundry 816-833-3021
2230 S Norton Ave D, Independence, MO
Supreme Cleaners & Shirt Laundry
816-761-3707
11114 Blue Ridge Blvd, KC, MO
Sta-Clean Cleaners, 816-421-6223
1120 McGee St., KC, MO 64106
Shamrock Dry Cleaners 816-942-2324
604 E. 99th St., KC, MO 64131
Shirley's Dry Cleaners, 816-444-4779
7936 Troost Ave., KC, MO 64131
Sparkling Coin Laundry, 816-741-3767
4605 NW. Gateway, Riverside, MO 64150
Sunshine Fabricare, 913-649-8364
8730 Santa Fe Dr., OP, KS 66212
Speedy Laundry, 913-631-6773
10403 W. 75th St, Shawnee, KS 66214
Tomahawk Laundromat 913-268-3535
10902 W 74th Terrace, Shawnee, KS 66203
The Dry Cleaners(MCI) 816-891-8448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0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ro Maki Japanese Restaurant
785-838-4134
601 Kasold Drive #102, Lawrence, KS 66049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achusetta,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양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종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Hebron Auto Sale & Repair
(유창홍) - 수리/판매, 816-252-1989
1301 W 23rd, Independence, MO 64050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경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763-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2-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11806 Blueridge Blvd, KC, MO 64055
816-763-6552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문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gkolf@gmail.com
미술: 이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
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F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허팅/쿨링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WHY MANY AMERICANS AREN'T BENEFITING FROM ROBUST US

ECONOMY By JOSH BOAK, AP Economics Writer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RB)의 의장인 Jerome Powell는 이번 주에 "미국 경제는 현재 아주 좋다"고 선언했다. 꾸준한 고용으로 실업률은 3.8%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196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역동적인 미국 경제 실태와 9년이라는 경제적 체감하지 못하는 미국인도 다수이다. 높은 기름값을 지출하는 운전자들부터, 육아 비용 상승과, 임금 인상이 더더 집 장만의 꿈이 꿈으로만 존재하는 부부들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 Oxford Economics의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미국의 소비 패턴을 연구한 결과 소득자의 60%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출퇴근하는 인구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2.4%에서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의 지출이 부담으로 남아있다. AAA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갤런 당 2.94 달러의 전국 평균으로 지난 해 대비 24% 증가했다. Morgan Stanley의 분석가들은 올해의 증가가 트럼프의 감세로 인한 국민

저축 액의 3분의 1을 앗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홈 바이어 강한 고용 시장은 실제로 주택 구매자가 될 저주가 될 수 있다.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의 결합으로 집 가격이 고질적인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인 Redfin은 174개 시장의 평균 판매 가격이 작년보다 6.3% 상승한 305,600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 집값의 중간 값은 5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전형적인 미국 가계가 관리할 수 있는 값을 훨씬 초과한다. 게다가 30년 고정 금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대출 구매자인 Freddie Mac에 따르면 이 대출 평균 이자율은 연초 3.95%에서 4.62%로 상승했다고 한다.

중산층 문제는 미국 경제 최상층의 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은 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아주 조금씩 혹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국가의 상위 10%가 부의 73%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1986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대부분 부유한 개인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여겨지는 국가의 중간 40%는 이와 대조를 이룬다. 1986년에 그들은 국가 부의 36%를 소유했지만, 지금은 27%에 불과하다. 미국인의 최하위 40%는 가장 위험한데, 순수 재산 가치가 마이너스 값을 띄는 데다가 경제적인 위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준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식, 임대 주택, 자본 이득 또는 상당한 가옥 지분을 현금으로 창출할 수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후, 정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인의 평균 시간당 소득이 변동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고등학생 졸업자 고용주는 점점 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보다 대학 졸업자를 선호한다. 지난해 26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가운데 정부의 취업 데이터에 따르면 70%가 대학 졸업자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만 졸업한 근로자는 일자리 증가의 1% 미만을 차지했다.

대학 졸업자 일자리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진학한 대학 졸업자에게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은 할수록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더욱 가

중되기 때문이다. 뉴욕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총 학생 부채는 540%가 넘는 1.4조 달러를 기록했다. 또, 대학 이사회에 따르면, 2016년 대학 졸업생의 약 60%가 평균 28,400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Urban Institute는 2015년에 고급 학위 학생들이 평균 18,210달러를 대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학부생이 같은 해 대출한 금액의 세 배에 이르는 수치다.

아동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Care.com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족 중 거의 3분의 1이 보육비로 전체 소득의 20% 이상 소비했다고 한다. 부모 중 거의 3분의 1은 보육 비용을 충당하다 부채가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 내 가족 휴가 및 보육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고 가정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정과 전체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율은 2000년에 약 77%였으나 현재는 74.8%에 그쳤다.

WASHINGTON (AP)

“The economy,”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declared this week, “is doing very well.” And it is. Steady hiring has shrunk unemployment to 3.8 percent — the lowest since the 1960's. Yet the numbers that collectively sketch a picture of a vibrant economy don't reflect reality for a range of Americans who still feel far from financially secure even nine years into an economic expansion. From drivers paying more for gas and families bearing heavier child care costs to workers still awaiting decent pay raises and couples struggling to afford a home, people throughout the economy are straining to succeed despite the economy's gains. When analysts at Oxford Economics recently studied American spending patterns, they found that the bottom 60 percent of earners was essentially drawing on their savings just to maintain their lifestyles. Their incomes weren't enough to cover expenses. Here's a look at the economy from their perspectives:

COMMUTERS

Even with inflation running at a relatively low 2.4 percent, one particular expense is weighing on anyone idling in traffic: Gasoline prices have surged 24 percent over the past year to a national average of \$2.94 a gallon, according to AAA. Analysts at Morgan Stanley have

estimated that the increase this year will likely eat away a third of people's savings from Trump's tax cuts.

HOMEBUYERS

A strong job market can actually be a curse for would-be homebuyers. The combination of high demand and low supply has driven prices to troubling high levels. The real estate brokerage Redfin says the median sales price in the 174 markets it covers has jumped 6.3 percent over the past year to \$305,600. So the median home sales price far exceeds what a typical U.S. household earning a median \$57,000 income can manage. On top of that, 30-year fixed-rate mortgages are growing costlier. The average interest rate on these mortgages has jumped to 4.62 percent — from 3.95 percent at the start of the year — according to mortgage buyer Freddie Mac.

THE MIDDLE CLASS

Problem is, America's wealth is increasingly lopsided, with the affluent and the ultra-wealthy amassing rising proportions and everyone else benefiting modestly if at all. The top 10 percent of the country holds 73 percent of its wealth, a share that has crept steadily up since 1986, according to the World Inequality Database. And they're arguably poised to become even more prosperous because Trump's tax cuts largely favored the wealthiest slice of individual

taxpayers.

Contrast that with the middle 40 percent of the country, a group that would historically be considered middle class. In 1986, they held 36 percent of the country's wealth; now, it's just 27 percent. Worse off is the bottom 40 percent of Americans: They have a negative net worth and almost no financial cushion in case of an emergency. Most Americans can't draw on stocks, rental properties, capital gains or significant home equity to generate cash. And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the government reported that Americans' average hourly earnings haven't budged over the past 12 months.

HIGH SCHOOL-ONLY GRADS

Employers increasingly favor college graduates over people with only a high school diploma. Out of the 2.6 million jobs added in the past year, the government's job data shows that 70 percent of them went to college graduates. Workers who have graduated only from high school made up less than 1 percent of the job gains.

COLLEGE GRADS

For all their good fortune as the favored recipients of job growth, there's a major downside for recent college graduates. Obtaining a degree has increasingly coincided with ever-higher student debt loads. Since

2004, total student debt has climbed 540 percent to \$1.4 trillion, according to the New York Federal Reserve. About 60 percent of college graduates from 2016 held debt, with an average of \$28,400, according to the College Board. The Urban Institute found that advanced degree students borrowed an average of \$18,210 in 2015 — about triple what undergraduates borrowed that academic year.

ANYONE PAYING FOR CHILD CARE

For nearly a third of families, the costs of child care swallowed at least 20 percent of their income, according to a survey posted in March by the caregiver jobs site Care.com. Nearly a third of parents said they went into debt to cover child care expense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some women remain outside the workforce because of the comparatively weak family leave and child car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relative to those in other developed economies. A result is that families are forgoing income that would otherwise benefit them and the economy. For women ages 25 to 54, that proportion — called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was roughly 77 percent in 2000. It's now 74.8 percent.

북아메리카의 3개국이 모로코를 제치고 2026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다 NORTH AMERICAN TRIO BEATS MOROCCO TO HOST 2026 WORLD CUP

ROB HARRIS and GRAHAM DUNBAR, AP Sports Writers

FIFA 투표자들이 경제적 그리고 실행 계획적 치밀함을 토대로, 모로코를 제치고 북미 3개국에서 2026년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올림픽 개최국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실시된 FIFA 총회에서 모로코는 65표를 얻은 반면, 미국은 134표를 득표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된다. 전국 축구 연맹의 이번 투표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2018년 러시아와 2022년 카타르를 개최국으로 지명한 2010년 개최된 FIFA 위원장의 선출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지역 입찰은 이번에 더 호소력을 발휘했으며 심지어 모로코가 위치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11표를 획득했다.

북미는 1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있는 반면, 경기가 진행될 16개 경기장에 대한 필요한 대규모 건설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2026년 80경기 중 60경기를 개최할 계획이며, 16개 팀이 토너먼트에 추가되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10개의 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Gianni Infantino FIFA 회장은 그 수는 바뀔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모로코는 새로운 기반 시설에 160억 달러 투자의 일환으로 14개 장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축해야 하기 때

문에 개최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모로코는 월드컵 유치 투표에서 5번째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2010년 대륙 유일의 토너먼트가 남아공에서 개최된 바 있다. 모로코 스포츠 기자 Omar Chraybi는 "기술적으로 말해서, 미국 입찰 능력이 모로코를 능가한다"고 인정했다. FIFA의 분석에 따르면, 모로코의 티켓과 환대 수익은 10억 7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는 20억 달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남자 월드컵 경기를 처음 개최하며, 멕시코는 1986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다.

NFL의 Giants와 Jets가 있는 뉴욕 외곽의 87,000명 수용 가능한 규모의 MetLife Stadium에서 결승전이 치뤄지는데, 이는 연방 검찰이 FIFA 부패에 관한 조사를 주도한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다.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축구 관계자 및 축구 관련 기업들이 기소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북미 지역 입찰은 6개의 주요 이슬람 국가 거주자의 여행을 금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에 대한 우려를 극복한 결과로 분석된다. FIFA는 이제 게임을 개최할 도시와 3개국 모두 토너먼트 장소를 보장받는 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어야 한다. CONCACAF을 이끄는 캐나

다의 Victor Montagliani는 이 지역에서 자격 조건이 충족된 된 7개 중 3개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올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다. 대륙간 플레이 오프를 통해 8번째 팀을 보낼 기회도 있다. 북미는 2025년 11월 6일 팀 플레이 오프 토너먼트를 개최하여 48팀 구성의 마지막 두 장소를 결정한다.

MOSCOW (AP)

North America will host the 2026 World Cup after FIFA voters overwhelmingly opted Wednesday for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certainty of a United States-led bid over a risky Moroccan proposal for the first 48-team tournament. The soccer showpiece will return to the U.S. for the first time since 1994 after gaining 134 votes, while Morocco got 65 at the FIFA Congress in Moscow, where the 2018 tournaments starts on Thursday.

"Thank you for entrusting us with this privilege," U.S. Soccer Federation President Carlos Cordeiro told the congress. "The beautiful game transcends borders and cultures." While Trump has been feuding with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over tariffs and policy after the G-7 meeting and with Mexican leaders about his proposed border wall, the heads of state

are not heavily involved in this World Cup bid. Even if Trump wins re-election, his presidency would end before the 2026 World Cup. The vote by national football federations was public, in contrast to secrecy surrounding the 2010 vote when FIFA's elected board members picked Russia to host in 2018 and Qatar in 2022, defeating the U.S. The regional bid proved more appealing this time and the North Americans even collected 11 votes from Africa.

"The United bid was strong and if it was just the United States, I think Morocco would have beaten them," said Cameroon federation official Kevin Njomo, whose country voted for Morocco. "People have a soft spot for Mexico, especially looking at Mexico as a little bit under-developed and giving them a chance. Canada is a good tourist destination. "But I think where it had the advantage was the World Cup would be more profitable in America and it is a capitalist world."

North America is optimistically promising to deliver \$14 billion in revenue helped, while the tournament won't require major construction work required on the 16 planned stadiums, all of which already exist. The U.S. proposed staging 60 out of the 80 games in 2026, when 16 teams will be added to the tournament, leaving Canada and Mexico



with ten fixtures each. But FIFA President Gianni Infantino suggested the split of games could change. "They have made a decision among themselves but ultimately it will be up to FIFA to decide," Infantino said. Morocco appeared too hazardous as a potential host when all 14 venues had to be built or renovated as part of a \$16 billion investment in new infrastructure. The vote leaves Morocco reeling from a fifth failure in a World Cup hosting vote, with the continent's sole tournament coming in 2010 in South Africa. Moroccan Prime Minister Saad Eddine El Othmani shared the national disappointment but tweeted his thanks to the bid organizers for "this common dream." Moroccan sports journalist Omar Chraybi acknowledged that "technically speaking, it's understandable – the U.S. bid capacity surpasses Morocco's." Yet he didn't lose hope, saying, "The world still looks at Africa as an underdog, but we can't afford to give up." While Morocco's combined tickets and hospitality revenue

projected to be \$1.07 billion, according to FIFA analysis, North America would generate \$2 billion more. Canada will host men's World Cup matches for the first time, while Mexico gets its first taste of the event since 1986. "To have a message coming from football that says actually Mexico,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can organize the biggest sporting and social event together," Infantino said. "It is a nice message." The 87,000-capacity MetLife Stadium outside New York — home of the NFL's Giants and Jets — is proposed for the final. It's just miles from where federal prosecutors spearheaded an ongoing investigation into FIFA corruption. More than 40 soccer officials and businesses indicted, convicted or pleaded guilty. The bribery scandal put the governing body on the brink, Infantino told the congress ahead of Wednesday's vote. "FIFA was clinically dead as an organization," Infantino said, reflecting on his election in 2016 before announcing plans to another four-year term in 2019. "Two years lat-

er, FIFA is alive and well, full of joy and passion and with a vision for its future." The North American victory suggests current FIFA leaders don't hold grudges against a country whose government has jailed corrupt sports leaders. "When they help us fight against corruption, of course, we are pleased," Infantino said.

The North America bid also had to overcome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policie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ncluding attempts to implement a ban on travel by residents of six majority-Muslim countries. FIFA now has the final say on which cities are selected to host games and whether all three countries are guaranteed a place at the tournament. Victor Montagliani, the Canadian who leads CONCACAF, wants them to take three of the seven guaranteed qualification slots reserved for the region as hos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ailed to qualify for this year's World Cup. There is also a chance to send an eighth team via an inter-continental playoff. North America will host the six-team playoff tournament in November 2025 to decide the last two places in the 48-team lineup.

Amira El Masaiti in Rabat, Morocco contributed to this report.

AP SOURCES: TIGERS-ROYALS TO PLAY IN OMAHA BEFORE 2019 CWS

ERIC OLSON, AP Sports Writer

OMAHA, Neb. (AP)

The Detroit Tigers and Kansas City Royals will play a regular-season game in Omaha the week the 2019 College World Series opens, The Associated Press has learned. Major League Baseball and the NCAA have been working to arrange a game as a kickoff event to the CWS, two people close to the situation told the AP on Wednesday on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they were not authorized to discuss details. A news conference with MLB Commissioner Rob Manfred was scheduled for Thursday at TD Ameritrade Park, the host site for the CWS. The move would be similar to the regular-season games played in Williamsport, Pennsylvania, in conjunction with the Little League World Series.

AP Sports Writer Ron Blum contributed.



KOREA'S OLDEST STONE PAGODA UNVEILED AFTER 20-YEAR RESTORATION

The Mireuksaji Seoktap in Iksan, North Jeolla Province, the biggest stone pagoda in East Asia, was unveiled on Wednesday after 20 years of restoration.

The project sets the record as the longest restoration in Korea of a national cultural property.

Safety checks in 1998 found the pagoda, which was built in 639, unstable. The restoration process consisted of a dissection of the structure, reinforcement, and a preservation process.

It cost W23 billion, the

second largest amount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Sungnyemun or South Gate in Seoul (US\$1=W1,107).

The restored pagoda is six stories tall, contrary to some expectations that it would be restored to its original nine-story, 27 m height.

Only the first and second stories, stylobate and staircase we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The third through sixth stories, part of which had collapsed, merely allude to the original shape with stones stacked at an angle.

"We had no idea of what the structure above the pagoda's seventh story actually looked like", said Choi Jong-deok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e also feared that the ancient stone would not bear the entire weight if we built more stories".

After a heated debate, experts conclud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partially restore the pagoda and preserve its original architectural integrity.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and it took three years to scrape off 185

tons of stone concrete with chisels.

In January 2009 when the first story was dissected, workers found nearly 10,000 pieces of relics stacked inside the pagoda when it was first built. New discoveries were made continuously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Bae Byung-sun, the restoration team leader, said thanks to the project, "our restoration techniques for stone cultural properties improved so remarkably that even officials from Thailand and Cambodia came to learn from us".

The restored Mireuksaji Seoktap is 14.5 m tall and 12.5 m wide, and weighs 1,830 tons. A total of 1,627 stones were use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ll open the pagoda to the public in December after removing scaffolding. It will be dedicated on March 12 next year to mark its 1,380th anniversary.
<https://www.hancinema.net/korea-s-oldest-stone-pagoda-unveiled-after-20-year-restoration-119701.html>



잘 싸웠지만 아쉽게 끝난 대한민국의 1%에 대한 도전, KO- REA' S CHALLENGE AGAINST 1 PERCENT POSSIBILITY OF TOURNAMENT

박진언: 스포츠 매니지먼트 (KU)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민국의 월드컵 도전이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지난 27일(미국 시간), 대한민국은 F조 마지막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맞아 2:0으로 승리하였지만 결국 1%의 기적을 넘지 못한 채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부진한 경기력과 축구 협회의 부실행정으로 인해 월드컵 시작 전부터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을 향한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스웨덴과 멕시코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이 무산됐다. ESPN은 2패로 최하위였던 대한민국에 16강 진출 가능성을 1%로 예상하였다.

최하위였던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에 성공하려면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두 골 차로 이기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디펜딩 챔피언 독일 역시 16강 진출을 위해 대한민국전 승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었다. 옆친 데 덮친 격 주장 기성용이 멕시코전에 당한 부상으로 인해 독일전 결장이 확실시되어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승리 자체를 낮게 전망하였다. 대한민국

은 그러한 예상을 비웃듯 완전히 뒤집으며 독일에 2:0으로 승리하였다. 조 1위였던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겼다면 대한민국의 1%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으나 멕시코가 스웨덴 3:0 완패를 당하며 대한민국은 독일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3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며 한국은 독일과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조기 마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일전 승리를 통해 월드컵에서 탑시드팀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팀과 세계 랭킹 1위와 디펜딩 챔피언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팀이 되며 16강 진출 실패의 쓴맛을 조금이나

마 달랠 수 있었다.

Unfortunately, Korea's World Cup challenge has ended. On June 27, South Korea stunned Germany with a 2-0 victory. Nevertheless, South Korea fell out of World Cup with 2 defeats and eventually didn't make the 1 percent of miracle. South Korea couldn't avoid be criticized for poor administration of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and lackluster performance in friendly matches before the World Cup. Moreover, after South Korea was de-

feated two games in a row by Sweden and Mexico, South Korea was in danger of being eliminated. At the time, ESPN anticipated South Korea only has 1% possibility to survive in group stage. There are two preconditions for South Korea to reach the knock-out stage. South Korea needed to defeat Germany with a two-goal lead, and Mexico must defeat Sweden. Public predicts South Korea could not defeat Germany with a two-goal lead, and will not be able to win over Germany. However, South Korea defeated "Defending Champion" Germany by 2:0 miraculously. Although one of the condition was fulfilled, South Korea could not make the knock-out stage because Mexico was defeated by Sweden. South Korea is eliminated despite victory over Germany. However, South Korea set various records with their game with Germany. South Korea became first Asian team who defeat Top seed team. South Korea also became that first Asian team to win first rank country in FIFA and defending champion. Although South Korea finished World Cup early, South Korea will grow up in the future.





NEW EVIDENCE THAT VIRUSES MAY PLAY A ROLE IN ALZHEIMER'S

LAURAN NEERGAARD, AP Medical Writer

WASHINGTON (AP)

Viruses that sneak into the brain just might play a role in Alzheimer's, scientists reported Thursday in a provocative study that promises to re-ignite some long-debated theories about what triggers the mind-robbing disease.

The findings don't prove viruses cause Alzheimer's, nor do they suggest it's contagious.

But a team led by researchers at New York's Mount Sinai Health System found that certain viruses — including two extremely common herpes viruses — affect the behavior of genes involved in Alzheimer's. The idea that infections earlier in life might somehow set the stage for Alzheimer's decades later has simmered at the edge of mainstream medicine for years. It's been overshadowed by the prevailing theory that Alzheimer's stems from sticky plaques that clog the brain.

Thursday's study has even some specialists who never embraced the infection connection saying it's time for a closer look, especially as attempts to block those so-called beta-amyloid plaques have failed.

"With an illness this ter-

rible, we cannot afford to dismiss all scientific possibilities," said Dr. John Morris, who directs the Alzheimer's research center at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St. Louis. He wasn't involved in the new research but called it impressive.

The study also fits with mounting evidence that how aggressively the brain's immune system defends itself against viruses or other germs may be riskier than an actual infection, said Alzheimer's specialist Dr. Rudolph Tanzi of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With Harvard colleague Dr. Robert Moir, Tanzi has performed experiments showing that sticky beta-amyloid captures invading germs by engulfing them — and that's why the plaque starts forming in the first place.

"The question remained, OK, in the Alzheimer brain what are the microbes that matter, what are the microbes that trigger the plaque?" explained Tanzi, who also had no role in the new research.

The team from Mount Sinai and Arizona State University came up with some viral suspects — by accident. The study, funded by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asn't hunting viruses but was looking for new drug targets for Alzheimer's. The researchers were using complex genetic data from hundreds of brains at several brain banks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people who'd died with Alzheimer's and the cognitively normal. The first clues that viruses were around "came screaming out at us," said Mount Sinai geneticist Joel Dudley, a senior author of the research published Thursday in the journal *Neuron*.

The team found viral genetic material at far higher levels in Alzheimer's-affected brains than in normal ones. Most abundant were two human herpes viruses, known as HHV6a and HHV7, that infect most people during childhood, often with no symptoms, and then lie dormant in the body.

That wasn't unusual. Since 1980, other researchers have linked a variety of bacteria and viruses, including another type of herpes that causes cold sores, to an increased risk of Alzheimer's. But it was never clear if germs were merely bystanders, or ac-

tively spurring Alzheimer's. The new study went further: Researchers used computer models to check how the viral genes interacted with human genes, proteins and amyloid buildup, almost like the viruses' social media connections, Dudley explained.

"We're able to see if viral genes are friending some of the host genes and if they tweet, who tweets back," Dudley said.

They found a lot of interactions, suggesting the viruses could even switch on and off Alzheimer's-related genes. To see if those interactions mattered, the researchers bred mice lacking one molecule that herpes seemed to deplete. Sure enough, the animals developed more of those amyloid plaques.

"I look at this paper and it makes me sit up and say, 'Wow,'" said Alzheimer's Association scientific programs director Keith Fargo. He said the research makes a viral connection much more plausible but cautioned that the study won't affect how today's patients are treated.

If the findings pan out, they could change how scientists look for new ways to treat or prevent Alzheimer's, said

Dr. Miroslaw Mackiewicz of NIH's National Institute on Aging. Already, NIH is funding a first-step study to see if an antiviral drug benefits people who have both mild Alzheimer's and different herpes viruses. Just having a herpes virus "does not mean you're going to get Alzheimer's," Mass General's Tanzi stressed. It may not even have penetrated the brain.

But in another study soon to be published, Tanzi showed biologically how both HHV6 and a cold sore-causing herpes virus can trigger or "seed" amyloid plaque formation, supporting the Mount Sinai findings. Still, he doesn't think viruses are the only suspects. "The Mount Sinai paper tells us the viral side of the story. We still have to work out the microbe side of the story," said Tanzi, who is looking for bacteria and other bugs in what's called the Brain Microbiome Project. "The brain was always thought to be a sterile place. It's absolutely not true."

SAMGYETANG RECIPE

삼계탕

Samgyetang is a warm soup for hot summer days. It is especially popular to eat this chicken soup on sambok (삼복) days, which are three distinct days of the lunar calendar—Chobok (초복), Jungbok (중복), and Malbok (말복)—commonly among the hottest and most sultry summer days in Korea. Eating samgyetang on these days is believed to promote health.

Ingredients

2 cornish hens. Each hen weighs about 1½ pounds, a nice portion for 1 person.
½ cup short grain rice (or glutinous rice), rinsed and soaked in cold water for 1 hour.
2 fresh ginseng roots, washed
2 large dried jujubes, washed
16 garlic cloves, washed and the tips are removed
2 to 3 green onions, chopped
salt
ground black pepper

Cook the chicken:

1. Strain the rice.
2. Remove the giblets from the hens and rub them with salt all over to clean them nicely. Rinse under cold running water.
3. Put the hens on the cutting board, pat dry, and remove any extra fat around the body cavities with kitchen scissors. Cut off the tips of wings if you want.
4. Stuff each hen with rice, 1 ginseng, 1 jujube, and 8 garlic cloves. Put any left-over rice in the pot.
5. Place the hens into a heavy pot. Add 8 cups of cold water, cover, and cook over medium high heat for 30 minutes.
6. Turn down the heat to medium and cook another 40 minutes until the chick-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1/KOCIS_Korea_Malbok_Samgyetang_03_%289493375058%29.jpg
Samgyetang(Chinken soup with ginseng) Seoul, Korea 2013-07-2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rea.net(www.korea.net) JEON HAN 삼계탕(蔘鷄湯)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전한

en, ginseng, and rice turn soft. Open up the pot from time to time and ladle some broth from the bottom over top of the chickens. If the broth evaporates too much, add more water.

7. Remove from the heat.
8. Serve in a bowl with the broth.

<https://www.maangchi.com/recipe/samgyetang>

KANSAS NATIONAL GUARD TO HAUL BOTTLED WATER TO NORTON

NORTON, Kan. (AP)

The Kansas National Guard has been called upon to haul 26 pallets of bottled water to a northwestern Kansas town where toxic algae has compromised the water supply. The bottled water was donated by Harvesters, a community food network, in Kansas City, Missouri and Topeka, and will be delivered to Norton on Saturday afternoon. Kansas Gov. Jeff Colyer declared a state of disaster emergency on Friday for the City of Norton due to harmful algae blooms in Sebelius Lake. The toxic algae is affecting the surface water intakes for the city's public water supply. The Kansas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 issued a boil water advisory for the Norton public water supply on June 19. Leo Henning with the Kansas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 says the agency is working with others to monitor and test water supplies.

믿음 / FAITH



잘 산다는 것

필자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딸이 시집을 갈 때 시집을 가기 전 날 밤 친정엄마가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아, 시집가서 잘 살어.” 그리고 그 딸을 불렀고 울었다. 그러면 그 딸이 “엄마, 엄마, 걱정 마. 나 잘 살게.” 그리고 엄마와 딸이 서로 등켜안고 울면서 그 밤을 지새웠다. 친정엄마가 잘 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애지중지 키운 자기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고 또 가난에 찌들려 힘들게 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살라는 말이다. 그 후 친정부모는 딸이 시집가서 잘 살면 너무나 좋아하고 남에게 딸 자랑을 한다. 그러나 딸이 시집가서 가난하게 살고 거기다가 혼수나 살림살이를 적게 해왔다고 무시당하고 구박 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친정부모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진다.

또 결혼해서 동창을 만나면 “야,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응, 나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서 돈 자랑, 집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해댄다. 그래서 내가 친구보다 못살면 화가 나고 더 나아가 그 친구가 잘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친구를 안 만난다.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는 이게 뭐냐고 불평을 털어놓는다.

도대체 잘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잘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을 그 정도로만 안다면 비극이다. 필자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 못사는 것이 한이 되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는 국민가요를 날마다 부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도록 일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인당 국민소득(GNP)은 겨우 69 달러였는데 1970년에는 250달러가 넘었고 드디어 2017년에는 2만 달러가 넘어서 세계에서 11번째 잘 사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오히려 잘 살려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거지같이 산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잘 살게 된 한국을 어떤 모습인가? 빈부의 심한 차이로 인해 잘 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해대고 민심은 사나워졌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형제간에 친구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 옛날에는 못 살아도 인심이 후했고 쿡 하나도 서로 나누어 먹었고 그런대로 행복했었다. 그러나 잘 살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삭막해지고 인정이 없고 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섭고 슬픈 세상으로 변질 되어버렸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잘 못 살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성도가 가난했을 때에는 교회 열심히 나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애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다. 그러나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자꾸 빠지고 기도도 시늉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몸과 마음이 더 멀어지고 보이는 것 돈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주야로 목상한다. 목사가 전화하거나 심방을 가면 전에는 반가와 하고 감사했지만 지금은 부담으로 여기고 은근히 싫어하고 피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어느새 교만해지기 시작한다. 그 순수한 사람이 변질되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뒤집어진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애를 쓴다.

성경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 담후 6:7-8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이 만족한 마음과 이 믿음이 있어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인간의 행복과 본질은 소유(물질)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의 행복은 소유보다 내가 어떤 존재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소유는 현상이고 존재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이 없는 현상은 허구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먼저 영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

고 육신이 잘되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은 잘 사셨다. 그 분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또 얼마든지 부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또 그 분은 지극히 가난했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기쁘게 사셨고, 가치 있게 사셨고, 후회 없이 사셨고, 아름답게 사셨고, 위대하게 사셨다. 그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 그 분은 정말 끝내주게 잘 사셨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당신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신과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자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물음 앞에 정직히 대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잘 사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잘 살기를 기도한다.

토피카 한인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 / 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TRAVEL: ROUTE 66, LARIMER SQUARE ON NATIONAL TRUST'S ENDANGERED LIST

The Associated Press

WASHINGTON (AP) Route 66, Denver's Larimer Square and school buildings in Los Angeles are on 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s 2018 list of America's 11 most endangered historic places.

The annual list highlights architectural and cultural sites that the National Trust deems at risk from development or neglect. The list can mobilize support and funding for preservation. But listings can also be controversial. Saving neglected historic properties is expensive. And when the National Trust advocates halting proposals to develop a site, local residents and officials may disagree, citing a need for modernization or economic growth. Still, of the nearly 300 places that the National Trust has identified since the list was launched 31 years

ago, the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says fewer than 5 percent have been lost.

ZONING, DEVELOPMENT AND DEMOLITION

The National Trust's concerns about local proposals for development range from Denver's Larimer Square to a site across from Mount Vernon in Virginia. Larimer Square is a thriving retail center. But the National Trust says its history as Denver's oldest commercial block and first historic district is threatened by proposals to build two towers and partly demolish several buildings. Elsewhere in Maryland, the National Trust says a proposal to rezone parts of the Colonial Annapolis Historic District threatens the City Dock area's views, heritage tourism and more.

In South Carolina, the National

Trust says an annexation proposal could lead to zoning changes and development that might damage the landscape of the Ashley River Historic District outside Charleston. In Los Angeles, the National Trust is calling attention to proposals to modernize schools that would include demolishing "almost all historically and culturally significant buildings" on the Roosevelt High School campus.

THE MOTHER ROAD

Route 66 is up for designation as a National Historic Trail, which the National Trust says would bring "recogn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o historic sites along the storied road. The U.S. Senate would have to pass legislation for the designation to take effect and the president would have to sign it before the end of 2018. Route 66 opened in 1926, connecting eight states between Chicago and California.

HISTORIC SITES, NEGLECTED

The Trust included three historic

sites on its list that are in urgent need of rehabilitation: an early Modernist house called Ship on the Desert in Guadalupe Mountains National Park, Salt Flat, Texas; the Mary and Eliza Freeman Houses in Bridgeport, Connecticut.

In Nebraska, the Trust noted that the Dr. Susan LaFlesche Picotte Memorial Hospital in Walthill is "unoccupied and facing an uncertain future." And in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 the National Trust said last year's hurricanes damaged thousands of historic and cultural properties.

WATCH STATUS

In addition to the 11 endangered places, the National Trust put four towns in rural Vermont's Upper Valley — Royalton, Sharon, Strafford and Tunbridge — on "watch status" because of a development proposal calling for a "planned community."

Online: <http://www.SavingPlaces.org/11Most>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담임 신부: 홍진 (베드로 주임신부)
9138 Pflumm Rd., Lenexa
913-912-2574(c)/913-563-7896
honghjin@daum.net
KCCNewMember@gmail.com

레반월스감리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Jin Ho Choi)
1526 10th Ave., Leavenworth 66048
913-682-7007 / 913-705-0604 (c)
vic223@naver.com

레반월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한규 (Hankyu Kim)
1000 N 10th St., Leavenworth 66048
913-682-3766
mauifullgospel@yahoo.com

로랜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성환
445 Lyon St., Lawrence 66044
443-910-2732(c)
www.lawrencechurch.org

미주리중앙침례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Church
담임목사: 김래원 (Raymond Raewon Kim)
105 SE 421st Rd., Warrensburg 64093
660-429-6511 / 660-864-3638 (c)
krwpreach@hanmail.net
www.cmkbcc.org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아브라함(Abraham Kim)
9595 W95th St, OP
913-617-3987 / 913-940-9188(c)
Shalom4abraham@yahoo.com

캔사스뉴비전교회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Nazarene
담임목사: 박근영 (Rev. GeunYoung Park)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knvc2008@gmail.com
www.ksnvc.com
facebook.com/KansasNewVisionChurchoftheNazarene

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Kansas New Haven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8714 Antioch Rd, OP 66212
전화: 913-730-0190
facebook.com/kcsdanewhaven

캔사스선교회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예반 김(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

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장 (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

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최안성 (Choe Ansung)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 816-800-1985(c)
Kjs72a@gmail.com
http://kckbc.onmam.com

캔사스 한인연합 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Kansas
김준형 목사: Pastor Junhyoung Kim
4849 England Street, Merriam 66203
917-415-9900 (c)/913-262-7535
www.kupck.org

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 (Chun Suk Lee)
3000 S 55th St, KCK 66106
913-265-9030
myloveisrael@gmail.com
www.ksyoungnak.org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

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Dawe Kim)
9400 Nall Ave, OP 66207
913-649-2488 / 816-304-2113(c)
centralkoreanchurch@gmail.com
facebook.com/ckumc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Soo C. Shin)
4505 Gibbs Rd., KCK 66106
913-369-5959 / 816-560-8619
sooshin@msn.com

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 (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 / 913-406-0586(c)
habyongjin@yahoo.com

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 (Kyle Y. Kang)
2002 51st St., KCK 66106
913-236-7636/ 913-653-7077(c)/ (213)
505-7434(Director)
kpckan@gmail.com
www.kpck.org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 / 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에게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 등 모든 알리를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게 실어드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kc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New Korean Asian Rest in Downtow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KOBI-Q

Golden Beauty Supply
함께 일하실 착실하신 분을 찾습니다.
Full time/ 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Kelly 816-213-1196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 도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HELP WANTED
Gangnam Korean Restaurant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HELP WANTED
Maru Sushi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Help Wanted
Dry Cleaners part-time
Front Counter
세탁소 카운터 알바 찾고있습니다.
913-599-3040

THE WAFFLE BAR
(장소는 다운타운 프라자 안입니다)
근무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Work Time: 11AM-9PM
(Flexible, 편리한 시간 근무 가능)
Position: Full, Part Time
Pay: \$9.00/hr plus Tops.
Contact: Rayan Awad (레이안 아워드)
Phone: 913-553-1399
(If you any questions, call contact Rayan Awad, 문의 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S&C Energy System Inc
저회회사는 LED Light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Buena Park CA에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확장을 하게되어 인재를 구인합니다
Sales- LED 관련 제품을 리베이트 프로그램 지원받아 판매하는 일입니다 나 이 성별 상관 없습니다. 판매가 쉽고 소득이 높습니다 영어를 완벽히 구사 해야 합니다 미국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Installer - LED 관련 제품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저희가 트레이닝 해 드립니다. 소득이 높습니다 미국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stgmkim@gmail.com 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816-584-0845

HELP WANTED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Please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 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Help Wanted: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 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Help Wanted: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eMaids of Kansas City, is looking for: honest, friendly, motivated and experienced individuals for Home/Office Cleaning. Applicants don't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but we prefer that they speak some En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municate with our team.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Must pass a background check and have reli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KC@

g m a i l . c o m o 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Polished Nails and Wax: Looking for full and part time technicians for nails, waxing, and facials: experience is a plus. Call 913.681.6245 and ask for Stephanie

Kryger Glass currently has a position open for a Warehouse/Delivery Driver within our Kansas City distribution center. This is a full time hourly day position; \$11-12 per hour depending on experience. Essential duties & responsibilities includes shipping, receiving, and delivery of auto glass and related products. Qualifications include, valid driver's license with clean record, able to pass physical, drug screen, and background check. If interested send resume to hr@krygerglass.com or apply in person at 1221 Harrison St, KC MO 64106.

서비스 / SERVICES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사 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 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부모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갱년기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휴대폰 가게 매매(Metro PCS): 캔자스 시티 지역 휴대폰 가게를 매매합니다. 여러지역에 가게 있음(St. Joseph,

Topeka, Raytown, Olathe, Merriam, Lawrence, Overland Park).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락주세요연 황(Yeun Hwang): 425-496-4040.

Business For Sale
 세탁공장 매매 (dry cleaning plant for sale)
 Location (위치): Olathe KS
 Contact (Call,Text) :913)549-0036
 가격 : \$150,000.00

하숙 / BOARDING

캔사스 민박 및 하숙-방5 개,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gmail.com

하숙합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라이드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 라운드리, 인터넷, 파킹랏 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가가 가까운거리에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학원 / INSTRUCTORS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 및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루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사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k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들의 학교수제를 돕고, 영어학습(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캔사스 시티 한인회 816.214-7814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사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The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사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ansas City, KS 66101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KCKJ 알림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사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rnal.com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 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kckoreanjournal.com

캔사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강일경 목사)
 2002 S 51st St. KC, KS 66106
 913-653-7077
 Kpckan@gmail.com

캔사스 한인 체육회 (회장 왕 희철)
 913-205-5922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캔사스시티연합성가단 (단장 안성호)
 913.481.4998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사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회장: 민상기) 913-710-9688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사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장영준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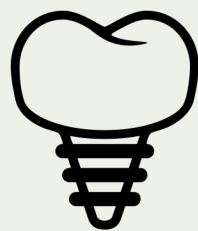
STATE AVENUE DENTAL OFFICE



캔사시티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치과병원

YOUNGJUNE CHANG, DDS

UMKC 생물학과 석사
KU 식물학과 박사
UMKC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DEKA CO2 Laser 과정 수료
Dentsply Implant System 수료
Hiossen (한국의 Osstem) Implant System 수료
FastBraces System 수료



임플란트!

가가격도 실력도 놓치지 마세요



www.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진료분야

임플란트
보철 치과 (크라운, 브리지, 틀니)
교정 치과 (Bracket, Invisalign)
신경 치과
소아 치과
미용 치과
치아 미백
구강암, 후두암, 갑상선암 검사
일반 치료, 발치, 잇몸치료
예방 치과

진료시간

Mon-Fri 8am-5pm
Sat-Sun Emergency Only

예약전화

T: 913-299-8554
913-299-8476
913-706-6405(응급)
F: 913-299-3187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

